

#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17 09  
제5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지키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토탈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 드라시나



국내 자체 생산라인을 24년간 유지한 유일한 아웃도어 브랜드  
ISO9001/ISO14001/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 등 인증 경력 보유  
자체 아웃도어 브랜드 '드라시나'매장 전국 운영 중  
조달청 등 공공기관 납품 경력 보유



한국해양구조협회  
고기능성 활동복 및 모자 납품



**KNN**   
**가족사랑 마라톤**  
2016년, 2017년  
2년 연속 드라시나 공식협찬





해양경찰의 새출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경찰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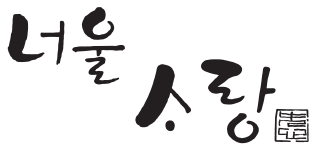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17 09  
제5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7년 9월 20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  
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  
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  
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 CONTENTS

### Special Theme

- 05 총재동정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발전 후원금 전달
- 06 칼럼 정상화된 해양경찰에 바란다  
-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MARSА News

- 08 본부 뉴스 1) 64주년 해양경찰의 날
- 09 2) 수협중앙회 주최 '어선안전의 날' 행사,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 10 지부·지역대 뉴스 1) 우리협회 봉사활동 지원조례 통과  
-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포항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12 2) 경북특수구조대 발대식
- 13 3) 서울지부 '프로미 가족사랑 안전체험페스티벌' 참가
- 14 4) 전국 구조대, 목숨을 건 구조·구난 활동
- 17 5) 경남서부지부, 청주시 수해피해지역 복구지원금 전달
- 18 6) 전국지부, 지역단체와 MOU체결

### MARSА Story

- 20 안전을 부탁해 전국 지부 및 지역대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 26 환경을 부탁해 경주구조대 가곡항 수중정화활동 취재

### MARSА Info

- 29 국내뉴스 1) 해양경찰청, 3년 만에 다시 독립 외청으로...변화를 다짐!
- 30 2)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31 3) 해양경찰이 뒀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어림없어!
- 32 4) 해양경찰청, 쓰나미 등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계기 마련
- 33 5) 원양어선의 새로운 변신! 운항효율 높이고 선원 복지공간 넓힌다.

### MARSА Notice

- 34 협회교육안내
- 36 협회후원안내

●● 총재동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발전 후원금 전달



▶ (왼쪽에서 세 번째)신정택 총재(부산시체육회 부회장)가 부산체육발전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여 글로벌 스포츠 스타로 선발된 선수 9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부산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부산시체육회관에서 ‘글로벌 스포츠 스타선수 및 고등부 정책종목 지원’을 위한 부산체육발전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협회 신정택 총재가 현재 부산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부산체육발전후원회원과 글로벌 스타선수, 학부모 등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금 3억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미래의 글로벌 스포츠 스타로 선발된 선수 9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씩을 수여하고, 고등학교 4곳을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 지원금 1,000만원씩을 수여하였다.

부산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스타선수들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 칼럼

# 정상화된 해양경찰에 바란다



이 은 방 해양환경안전학회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대비, 대응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부서와 합쳐 국민안전처를 발족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취지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모든 안전이 획일적으로 관리될 수는 없다. 원자력안전,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듯 특히 해양안전은 해양활동의 정확한 이해와 특성을 토대로 한 경험과 전문성이 간과된다면 해양안전의 향상은 개대할 수가 없다.

늦게나마 종합적인 해양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해양경찰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 산하에 독립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정상화한 것은 다행이다. 해양경찰은 Coast Guard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써 단지 바다의 경찰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훨씬 넓고 막중하다. 다양한 위험과 위험요소가 공존하는 해양현장 업무는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비용 행정서비스이다. 해양사고 구난구조, 해양생태 및 환경보존, 해상교통 안전관리 등 봉사적 행정에서부터 해양관련 법집행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 명령의 성격이 강한 업무, 영해를 비롯한 EEZ(배타적 경제해역) 등 관할해역에서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임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세계 각국의 Coast Guard는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현장 업무를 통합화하고, 중앙정부주도 하에 미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현장에서 주도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현장 지휘관이 주도성을 가지고 올바른 상황판단과 정시성 높은 대비, 대응을 위하여 지휘통제시스템(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의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해양치안 환경에 맞는 정체성 높은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여년 역사의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 유사한 문화권의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해양력 강화를 위해 Coast Guard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옛 공산권 국가들의 변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

해양의 가치와 의미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가 간 해양을 매개로 한 갈등과 대립은 점점 심화될 것이고 해양산업의 경쟁도 치열해져가고 있다. 해양활용의 다용성과 고밀도화, 새로운 위험, 위협요인의 대두 등 해양치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의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에 중점을, 해양경찰은 이러한 가치창출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개발 가능한 해양을 유지 보호하는 종합현장집행기관으로써, 상호 유기적으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 해양에 대한 상충되는 가치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간에 갈등의 원인도 될 수 있으나 해양의 가치증대 업무와 해양의 현장안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국민의 해양가치 향유의 극대화에 같은 지향점을 두고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승승할 수 있는 조직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Korea Coast Guard)은 국민의 오해와 불신으로 사기저하의 위축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종합적인 해양현장 행정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확고한 비전과 사명을 설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국민이 해양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유자원의 첨단화,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해양현장 대비/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구조/구난, 해양안전 분야단체(기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안전관리를 통하여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가꾸는 해양경찰 업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전문성, 수월성, 현장성 높은 국가조직으로 해양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해양경찰(KCG)이 되기를 바란다.



## 64주년 해양경찰의 날

지난 9월 13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는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신정택 총재, 민홍기 이사장, 김성태 수석부총재 및 이사진, 전국 협회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박경민 해양경찰총장, 신정택 총재가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주권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매년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처음 맞는 행사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행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해양 안보에 있어서도 해군 및 외교 안보기관들과 협업 공조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국가 안보체제의 한 축으로서 해경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더 이상 바다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오늘의 다짐은 세월호의 희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해양경찰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다짐하는 진심어린 약속"이라고 말하였다.





## 수협중앙회 주최 ‘어선안전의 날’ 행사,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 협회 김운섭 본부장이 어업인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지난 9월 1일,  
부산 자갈치시장 일원에서 수협중앙회가 주최한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해양 수산부, 어업인, 관련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V-ON운동(어선 위치발신기 전원 켜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소화기 사용법 시연 및 체험, 구명뗏목 팽창 및 해상시연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우리협회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

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수협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정부·수협·어업인이 하나가 되어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리협회 봉사활동 지원 조례 통과

##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창원시의회 박춘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5일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의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증가에 맞춰 해안선과 청정해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골자를 두고 있다.

우리협회 경남동부지부는 지역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활동에 필요한 구조용품, 응급약품구입, 봉사자들의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부 자체 재정(임원 회비 및 기부금)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전문 구조장비 지원과 봉사자들의 처우에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봉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며 경남동부지부의 해양안전 및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범위가 좀 더 넓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남동부지부는 중·고등학생,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해 소고도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여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 실종자 수색 및 선박 예인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창원 관내 수중 및 연안폐기물을 수거(총68톤)함으로써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 「포항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포항시의회 정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가 지난 8월 31일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협회 경북지부 소속 포항구조대는 지난 2014년부터 동해안 해역에서 3년간 22차례 구조활동을 벌여왔으며 한해 투입된 구조대원만 181명이다. 익수자구조, 사체인양, 차량인양, 조난선박예인 등 매년 일선에서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호미곶 어선전복사고, 포항구항 선박충돌사고와 같은 포항시의 굵직한 사고 현장에 잠수대원들이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작업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구조현장에 투입되었지만 구조대원들의 기본적인 경비와 식비마저도 지부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왔다. 또한, 구조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출동 횟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부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포항시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구조대원들의 처우가 한층 더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조대원들의 사기증진과 구조관련 전문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북특수구조대 발대식



◀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오윤용 포항해양경찰서장, 민흥기 이사장, 김복수 경북특수구조대장, 특수구조대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협회 경북지부는 지난 9월 8일 포항해양경찰서 2층 강당에서 경북특수구조대(대장 김복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 오윤용 포항해양경찰서장,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회원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발족한 경북특수구조대는 잠수요원 32명을 포함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00m 이상 잠수가 가능한 전문잠수요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해양오염방지활동, 수중식물이식활동, 구조·구난활동과 해양경찰, 해군 UDT, 해병1사단수색대, 소방 중앙119구조단 등 전문 잠수인력이 필요한 곳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흥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강한 응집력을 자랑하는 경북지부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구조대의 출범을 계기로 이곳 포항은 물론 동해남부바다에서의 수색과 구조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오윤용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이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구조현장에는 전문인력과 민간협조가 아직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경북특수구조대는 수심이 깊고 심해잠수가 필요한 경북 동해안의 특색에 맞는 민간전문구조대로 앞으로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하고 민·관 협업 그리고 선진구조체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지부 ‘프로미 가족사랑 안전체험페스티벌’ 참가

우리협회 서울지부는 지난 8월 9일, 동부화재에서 주최한 ‘프로미 가족사랑 안전체험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프로미 가족사랑 안전체험 페스티벌’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재, 물놀이사고, 승강기 사고, 유괴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서울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선박이 침몰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흔들림과 기울어짐 상황을 재연하는 모형선박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선박에서 탈출한 어린이들이 구명뗏목에 탑승하면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서울지부 김상철 협회장은 “서울지부의 대원들은 대부분 재난안전지도사 1급을 보유한 전문 강사진들로서 이러한 행사가 있을 경우 개인시간을 희생해가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직접 참여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 서울지부 이세민 강사가 구명뗏목에 탑승한 어린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 전국 구조대, 구조·구난 활동

### | 포항구조대, 어선과 바지선 충돌사고 실종자 수색

지난 8월 31일, 새벽 4시 40분쯤 포항구항 입구에서 4.6톤 어선과 천107톤 바지선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어선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져 이모씨(70) 등 2명이 숨지고 원모씨(64세)가 실종 되었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포항구조대원들

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민간어선 9척, 해군함정 3척, 헬기 2대등을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사고 소식을 접한 포항구조대 또한 구조선 2척과 다이버 9명을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에 동참하였다.

실종 당일,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종자를 찾지 못하였으나 이튿날, 아침부터 수색작업에 나선 구조대원들은 오전 8시경 실종자를 발견하여 시신을 인양하였다.

앞서, 8월 30일에도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높은 파도에 전복돼 선원 9명 중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포항구조대는 해경과 함께 수색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였다.



## | 강진구조대, 바다추락 차량 인양

지난 8월 13일, 오전 6시경 강진마량선착장 근처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해 승용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우리협회 강진구조대는 잠수장비와 잠수구조대원 2명을 투입하여 차량인양 작업을 진행하였다. 강진구조대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시 출동 체계를 가동하여 빠른 대처로 사고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 크레인을 이용하여 추락한 차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 | 제부구조대, 제부도 연안지역 실종 어민 구조 활동

지난 7월 23일, 해루질을 하기위해 제부도 연안지역을 찾은 지역주민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갑작스럽게 안개가 짙어지면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던 주민들은 한치 앞을 가늠 할 시야조차 확보하기 힘들어 길을 잃었고 만조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종자들의 위치파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우리협회 제부구조대는 박은석 대장을 비롯한 3명의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으며 해경 구조선이 실종자들을 빨리 구조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위치파악 및 상황보고 등을 진행하였다.

신고 직후 40분 만에 실종자들을 발견하고 구조하여 안전하게 귀가 시켰다.



◀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제부구조대원들

## | 통영사랑도 дай버 실종자 수색작업에 각 지역 구조대원들 모여 ...

지난 7월 22일, 경남통영에서 50대 스쿠버 дай버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해양경찰과 우리협회 구조대원들이 실종자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통영, 진사, 삼천포 등 인근지역에 있는 협회 구조대원들 20여명이 잠수장비 및 어선 등을 동원하여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활동을 펼쳤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дай버 김모씨(54)는 동료 1명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오후 12시 40분께 실종이 되었다.

김씨 동료의 실종신고로 수색에 나선 통영해양경찰서와 우리협회 구조대원들은 4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4시 43분께 실종 지점 인근 바닷속에서 숨겨 있는 김모씨를 발견하여 인양하였다.

## | 경남동부지부, 실종 다이버 수색작업

지난 6월 25일, 거제 장목 유호리 사근서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남동부지부 소속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다.

명계를 채취하기 위해 사근서에 목적지를 두고 선장 포함 3명이 어선(세이블호)에 탑승 하였으며 그 중 다이버 이모씨(58)가 입수 후 몇 분이 되지 않아 떠내려가는 것을 선장이 목격하고 신고하였다.

경남동부지부는 총 23명의 구조대원과 9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해경과 실종자 수색을 벌였다.

3일에 걸쳐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끝내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종료하였다. 실종자 사체는 약 2주 후,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근처 어민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남동부지부 소속 구조대원들





# 경남서부지부, 청주시 수해피해지역 복구지원금 전달

지난 7월 21일,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의 장종철 협회장을 비롯한 10명의 구조대원들은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청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다.



◀ 경남서부지부 장종철 협회장이 충북시민재단 강태재 이사장에게 2,000,000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16일 시간당 90mm 넘는 폭우로 24명의 사상자와 42가구 10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주택, 차량, 농경지 등 침수로 인한 피해 액수가 73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서부지부는 실의에 빠진 청주시민을 위로하고 빠른 수습을 위해 청주시를 방문하여 수해피해시설 복구작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200만원을 충북시민재단에 직접 전달하였다.

장종철 협회장은 “직접 현장에 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여 안타깝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전국지부, 지역단체와 MOU체결

## | 경북특수구조대, 국제로타리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과 MOU체결

지난 7월 28일, 우리협회 경북특수구조대는 국제로타리3630지구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복수 경북특수구조대장,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 김덕일 회장을 비롯한 경북특수구조대원들,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국제로타리3630지구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은 사랑과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매달 연일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3곳의 지역 아동센터,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활동 등 “초아의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서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은 경북특수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킨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후원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업하기로 하였다.

행사종료 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함께 참가하여 생수와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자원봉사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북특수구조대원들이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 김덕일 회장,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인천지부, 회원건강보건 증진을 위한 '나사렛국제병원'과 MOU 체결

지난 7월 7일, 우리협회 인천지부는 인천 연수구소재 '나사렛국제병원'과 MOU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사렛국제병원은 1987년 개원하여 난치병 및 불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크게 공헌하며 현재까지 지역민의 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우수한 양·한방 협진 치료성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접국의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부 송주석 협회장을 비롯한 김운한 사무국장 그리고 권구진 진료원장 및 관련자들이 모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협회 인천지부는 이번협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기로 하고 회원들은 병원으로부터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 인천지부 송주석 협회장과 나사렛국제병원 권구진 진료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을 부탁 海

안전한 바다, 행복한 여름을 위해 전국 구조대가 나섰다!

## 전국 구조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지난 3년간 해수욕장 이용객은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4년 6천9백55만 명에서, 2015년에는 9천9백85만명으로 2016년에는 1억3백2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협회구조대원들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국의 구조대원들은 가족과 휴가를 떠나는 것도 잠시 미루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위해 해수욕장을 찾아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인 구조대원들의 소식을 담아본다.

지난 7월 30일, 사량도 대항해수욕장에서 엄마와 아기가 튜브

보트를 타던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있던 통영구조대원이 제트스키를 타고 즉시 출동하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남양주 구운천 계곡에서도 판곡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던 남양주구조대원들이 이를 발견하여 신속하게 구조하였다. 이날 이 곳 구운천 계곡에서는 하루 동안에만 2건의 익수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남양주구조대 덕분에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익수자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가 접수된다. 지난 7월 24일, 진해 소고도에서 하계인



▲ 익수자 구조에 나선 남양주구조대원들



▲ 침몰어선에서 바닷물을 빼내고 있는 창원구조대원들



국민들이 휴가를 즐길 때 우리는 바다를 지킨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사명이다.



▲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장비를 착용중인 울산남구구조대



▲ KBS VJ특공대에 소개된 보령구조대 구조활동

명구조센터를 운영 중이던 경남동부지부는 근처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양경찰의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하였다. 어선이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 도착한 구조대는 침수된 바닷물을 빼내는 등 신속한 초동대처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16일,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센터를 운영 중이던 울산남구구조대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49세 남성이 물놀이 중 실종되었다는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울산해경과 함께 실종자수색에 나섰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수색활동이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여름해수욕장을 불철주야 지키는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촬영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보령구조대는 술을 마시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든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제트스키를 이용하여 구조작업을 벌였다. 보령구조대의 구조활동은 8월 4일, KBS VJ특공대를 통해 방송되면서 뒤늦게 전국적으로 알려 지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여름휴가철이면 우리협회 소속 구조대원들은 전국의 39개 해수욕장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지만 이들에게 여름은 대국민 봉사를 위한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인명구조센터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계휴가를 활용하는 대원, 평일과 주간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주말이나 야간에만 근무를 지원하는 대원, 대원 가족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구조대장. 매년 여름 100일 동안 우리협회 구조대원들에게는 생업과 봉사의 경계가 모호하고 생체리듬 또한 느슨하고 불규칙하다.

다가오는 2018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게 우리 구조대원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며 사명이니까.





# 전국 지부 및 지역대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현장

**경남동부지부**  
소고도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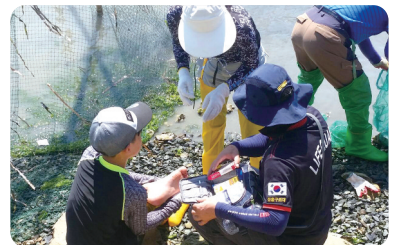
**남양주구조대**  
수동계곡(구운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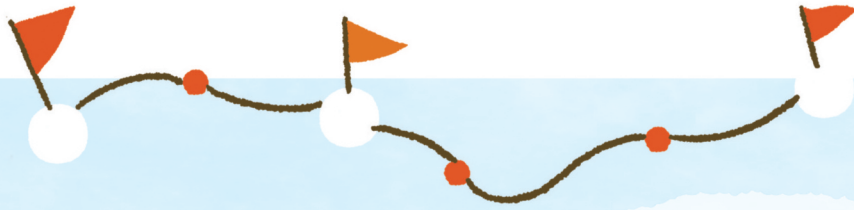
**통영구조대**  
공설해수욕장



**장흥구조대**  
정남진장흥물축제



# 안전을 부탁 海



**경주구조대**  
진리해수욕장



**거창구조대**  
건계정계곡



**양양구조대**  
사천진해수욕장



**부안구조대**  
모항해수욕장





**울주구조대**  
진하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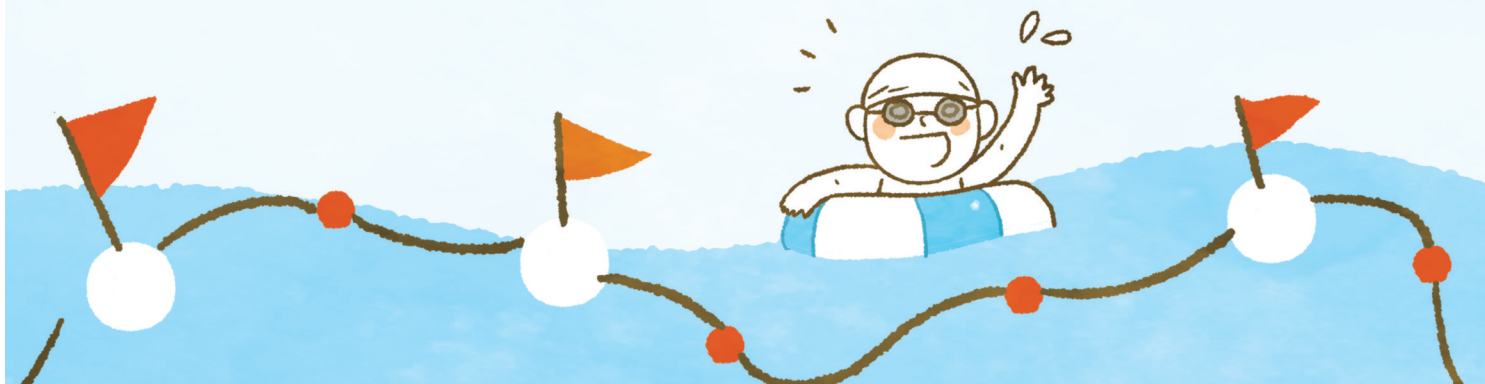
**울진구조대**  
고래볼해수욕장



**정읍구조대**  
정읍칠보물테마유원지



**포항구조대**  
죽천, 영일대해수욕장







# 안전을 부탁 海

**원주구조대**  
삼강유원지



**고흥구조대**  
남열리해수욕장



**보령구조대**  
대천해수욕장



**완도구조대**  
명사십리해수욕장



# 환경을 부탁 海

## 해양환경보전은 '인식개선'으로부터 경주구조대 수중정화활동



경주의 소규모 항포구는 행정적 지원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 수년 동안 환경정화작업이 전무했던 시기가 있었다. 지역어민들은 바다 속에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어업활동을 해왔다. 경주구조대가 수중정화활동을 시작하면서 경주시의 항포구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이 점차 클로즈업되었다.

경주구조대는 2010년 경주의 지경, 진리, 읍천, 죽전, 수렴 항포구를 시작으로 1년에 3회 이상 수중·수변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경주의 12개 항포구에게까지 대폭 활동범위를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경주시의 항포구 해양환경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 | 인터뷰\_ 경주구조대 김성수 대장

#### | 체계화된 작업, 각자의 역할 분담

지난 8월 26일, 경주시 감포읍 가곡항에는 경주구조대 김성수 대장을 비롯한 30명의 경주구조대원들이 수중정화활동을 위해 모였고, 작업에 앞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전점검 작업이 한창이었다.

“10명의 잠수구조대원들은 입수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혈압, 체온, 컨디션, 질병여부 등을 묻고 담당 대원은 직접 노트에 잠수대원의 상태를 체크한다. 정상기준에서 하나라도 벗어날 경우 잠수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대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매번 현장에는 해양경찰도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수중정화작

업이 진행되는 동안 근처 어선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항을 제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잠수대원들이 끌어올린 쓰레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어선이 나 크레인을 동원해 수거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원들의 힘에 의존해서 수거한다. 남녀대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쓰레기 수거에 힘을 쓰다 보니 오후쯤 금세 체력이 소진된다. 그래도 보람이 크니 매년 활동에 적극적이다”

특히 여성대원들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페어망, 생활쓰레기 등을 삼삼오오 합심하여 꺼내 올리는 모습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다. 이날 수중에서 제거한 쓰레기양은 약 2톤가량 되었다.



▲ 혈압과 체온 체크중인 대원



▲ 잠수준비 중인 잠수대원들



▲ 페어망을 끌어올리는 대원들



▲ 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수거작업

### | 어업인들의 인식변화로부터

“이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은 어업기인쓰레기이다. 경주구조대에서 주기적으로 수중정화활동을 진행해왔지만, 어업인들의 인식개선이 안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촌계장들에게 무단 투기된 폐기물들의 심각성을 현장에 와서 직접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주구조대 김성수 대장의 생각은 옳았다. 2010년부터 수중정화활동을 진행했지만 투기된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어업인들의 참여가 시작된 2016년 부터다. 어업인들은 바다 속에서 수거되는 폐기물들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고 한다. 현장에 참여한 이후 그들의 인식개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페어망과 통발 등 어업기인쓰레기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금은 함께 활동하면서 매번 정화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

김성수 대장의 말처럼 가곡항에 모인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을 위해 국수를 삶아 점심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어선 등을 지원하여 폐기물들을 건져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 좀 더 체계적인 작업을 위해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기인하는 쓰레기가 다양하며 수질오염의 정도도 다르다. 어업기인쓰레기는 줄어들었지만 사실 생활쓰레기는 크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중정화활동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거물의 분류, 수량, 비율, 사진촬영,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해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중정화활동의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어업기인쓰레기처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넓혀나가고 싶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수중정화활동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 잠수장비를 점검중인 경주구조대 김성수 대장



## 전국 지부 및 지역대의 해양환경 정화활동 모습

### | 통영구조대

8월 28일, 통영구조대 수중정화활동



### | 울진구조대

8월 14일, 울진구조대 해수욕장 수변정화활동



### | 경주구조대

7월 22일, 경주주상절리 진리항 경주구조대 수중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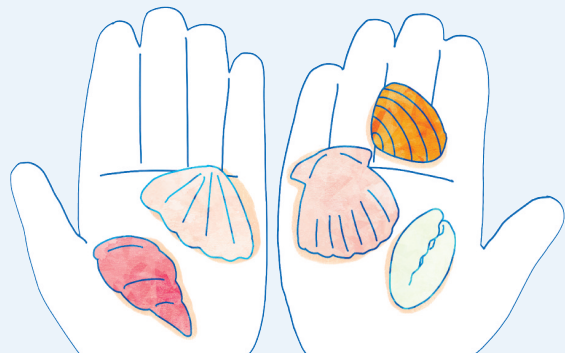
### | 경남동부지부

7월 16일 경남동부지부 창원시 소고도 수중·수변정화활동



### | 통영구조대

7월 13일, 통영구조대 비진도 수중·수변정화활동



#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해양경찰청, 3년 만에 다시 독립 외청으로...변화를 다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처별 직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이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지난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독립 외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공식 출범과 함께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사고가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의 '다음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진정한 '국민안전'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국민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국민이 체감하는 ①'튼튼한 안전',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는 ②'당당한 주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민생을 돌보는 ③'공정한 치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④'깨끗한 바다', 그리고 소통과

정리로운 조직문화가 근간이 되는 ⑤'탄탄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3년 간 뼈를 깎는 다짐과 노력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새로운 출범을 맞이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어떠한 위급한 순간에도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뛰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한 관계자는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수호는 물론 해양치안확보 등 바다에 관한 한, 거듭난 우리 해양경찰이 국민 행복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향후 해양경찰청이 어떻게 바다의 안전을 책임져 나갈지 그 변화가 크게 기대된다.

[출처 -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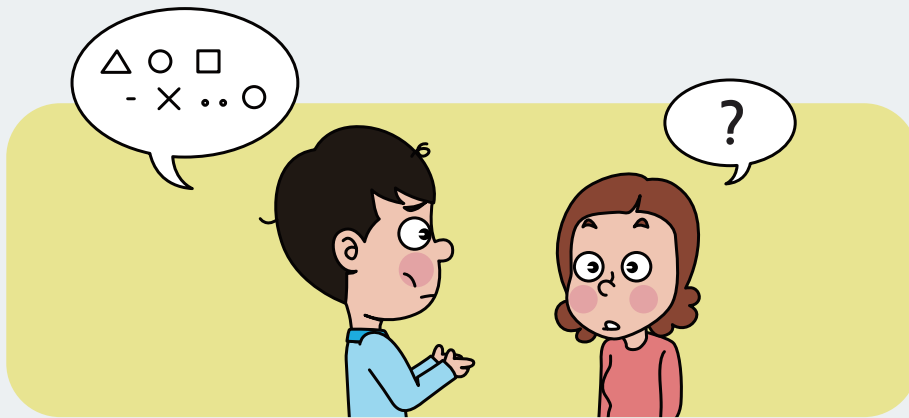


# 안전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제세동기 → 심장충격기, 안전분야 용어 42개 순화

‘제세동기(除細動器)’,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지만 명칭만 듣고 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 그동안 안전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이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순화하였다.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아울러, 건축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 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

기’로, 교통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달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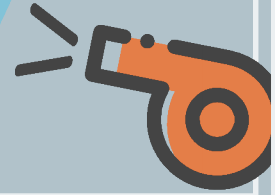
일본어식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블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 해양경찰이 뒀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어림없어!



## 가을 · 겨울 성어기 대비, 불법조업 특별단속 대책시행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하반기 성어기(9~12월)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지난 9월 1일 중국의 휴어기가 종료되고 가을 꽃게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해경은, 서해 NLL 해역에 외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가시키고, 특수진압대를 선제적으로 배치시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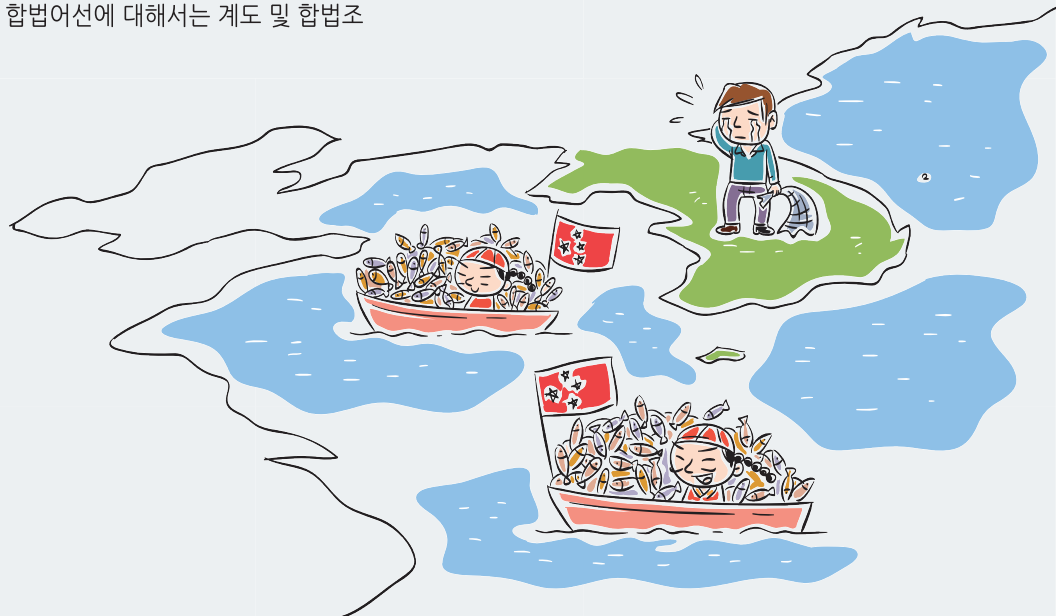
아울러, 불법과 합법어선에 대한 분리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어선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계도 및 합법조

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9월4일부터 5일까지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요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전술 개발 및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7~8월 기간 중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정비하는 등 하반기 성어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해경청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쓰나미 등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계기 마련



### 한·일 기관장회의에서 일본의 해양 재난정보 및 대응 매뉴얼 공유 합의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매뉴얼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9월 1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해양치안 총괄기관인 해상보안청의 나카지마 사토시(中島 敏) 청장을 만나 위와 같이 합의하고, 나아가 해양 안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지진이 잦아지면서 순식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쓰나미\*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 '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 23만 명 이상 사망, '11년 동일본 대지진 · 쓰나미 : 1만 8천여 명 사망 · 실종

이 가운데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나미 등 해양자연재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재난 상황별 매뉴얼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을 통한 마약 · 총기류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담당 부서간 합동수사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그간 해양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1회에 걸쳐 양측의 경비함정이 참여하는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7월 26일 해양경찰청 재출범 및 박경민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기관장급 회인인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은 기존의 협력 기반 아래 더욱 발전된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박 청장은 한·일 정례회의에 이어「제18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에도 참석하여 주변국에 수색구조, 해양오염 방지, 국제범죄 예방 등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 한국 ·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캐나다 6개국 해양치안기관장이 만나 현안 논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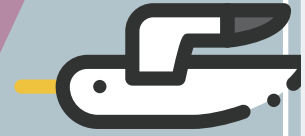
6개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수색구조, 해양테러 예방, 불법어로, 마약·밀입국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박경민 청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장과의 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안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결과,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세계 각국과의 공조 확대를 통해 외국 해역 사고 시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경찰청]



# 원양어선의 새로운 변신! 운항효율 높이고 선원 복지공간 넓힌다



## 해수부, 노후 원양채낚기어선 현대화를 위한 표준선형 개발... 9월 최종 승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참치선망선, '15년 참치연승선 표준선형 개발에 이어 금년에는 원양채낚기어선\*의 표준선형을 개발하였으며, 9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원양채낚기어업 : 집어등으로 오징어 어군을 선박 밑에 모이도록 하고, 자동조상기(낚기어구)를 사용하여 어획하는 방식의 어업

현재 원양채낚기어선 중 약 53%는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 건조된 중고선을 매입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70~80년대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다. 이 중 98%가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연비가 낮고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부족하여 조업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채낚기어선의 조업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선박설계 전문기관을 통한 새로운 표준선형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1년간의 연구 끝에 최종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기본설계도 및 복원성 등에 대한 선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보완 후 금년 9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최종 승인을 받아 표준선형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원양채낚기어선 표준선형에서는 기존 노후 어선 대비 추진효율을 4~7% 가량 개선하는 한편, 선체구조강도를 충족하면서도 어획물 저장고의 구조를 개선하여

선박 당 평균 22톤가량 무게를 줄였다. 또한 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획물 탑재·운항상태 등 조업 조건을 고려하여 복원성을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형태의 선형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의 복지공간 기준에 따라 선원실을 기존 6~8인실에서 4인실 위주로 재배치하고, 어선원 및 선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병실,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하여 복지, 보건공간을 늘렸다.

양동업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원양채낚기어선 표준선형을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향후 신조되는 원양어선의 조업안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원양어선원의 복지 증진 및 국내 중소 조선업계의 일감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협회교육안내

# 2017년 하반기 『인명구조요원』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 2017년 하반기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해수욕장 및 실내수용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육비 : 요원 20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교육계획(안)**

인명구조요원		비고
교육일자	장소	
9월중	중부해경청	
9월중	서해해경청	
9월중	남해해경청	
9월중	한전119	
10월중	해경교육원	
10월중	해경교육원	
10월중	부산지역	
11월중	부산지역	강사교육
11월중	경남서부지부	
11월중	전남동부지부	
12월중	경북지부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흥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협회교육안내

### 2017년 하반기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 2017년 하반기 교육계획 |

■ **개요**

- 기간 : 2017년 9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상 : 1급 - 고졸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육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교육계획(안)**

재난안전지도사		비고
교육일자	장소	
11월중	경주구조대	강사교육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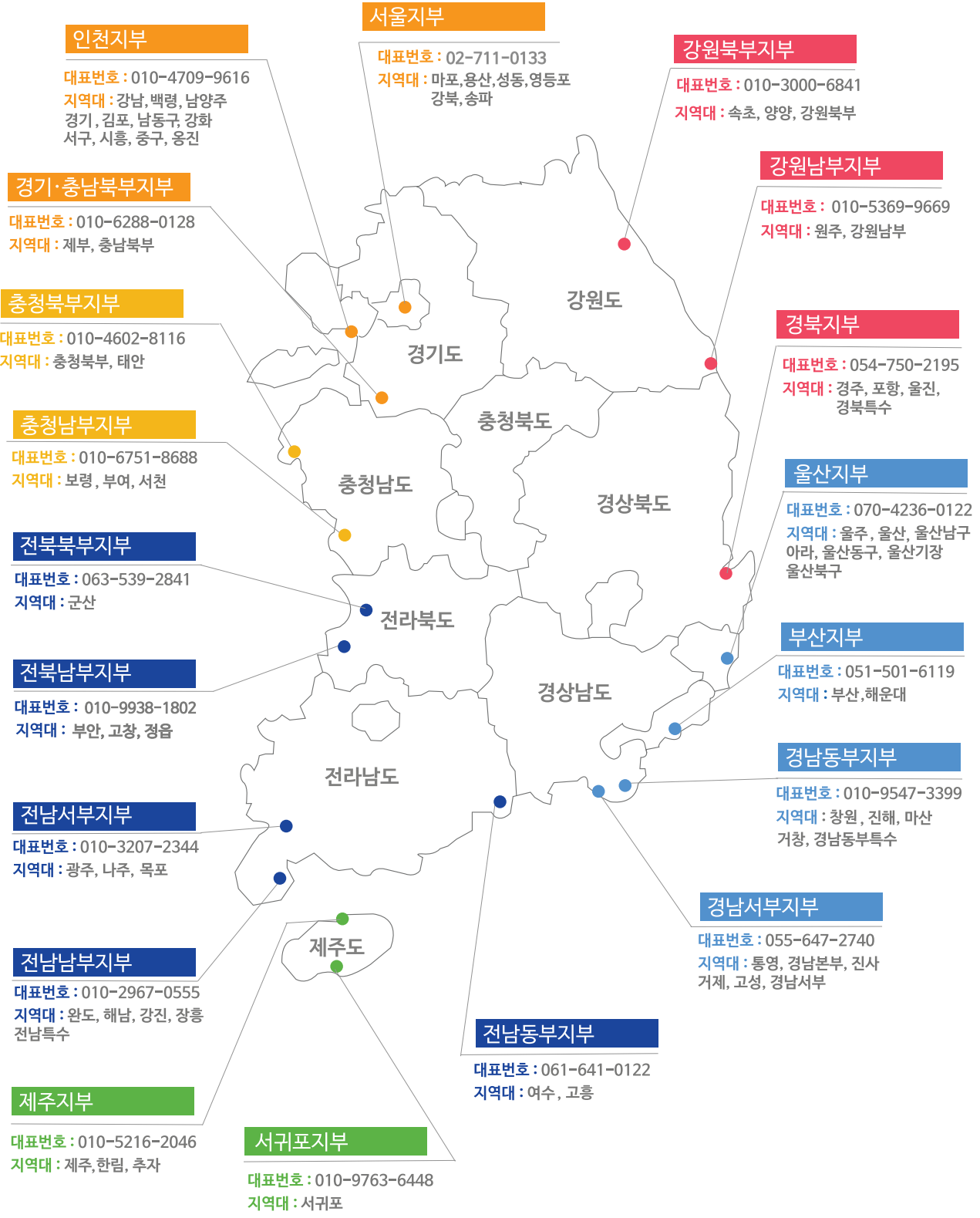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marsa122@marsa.or.kr |



# 각 지역 지부 및 구조대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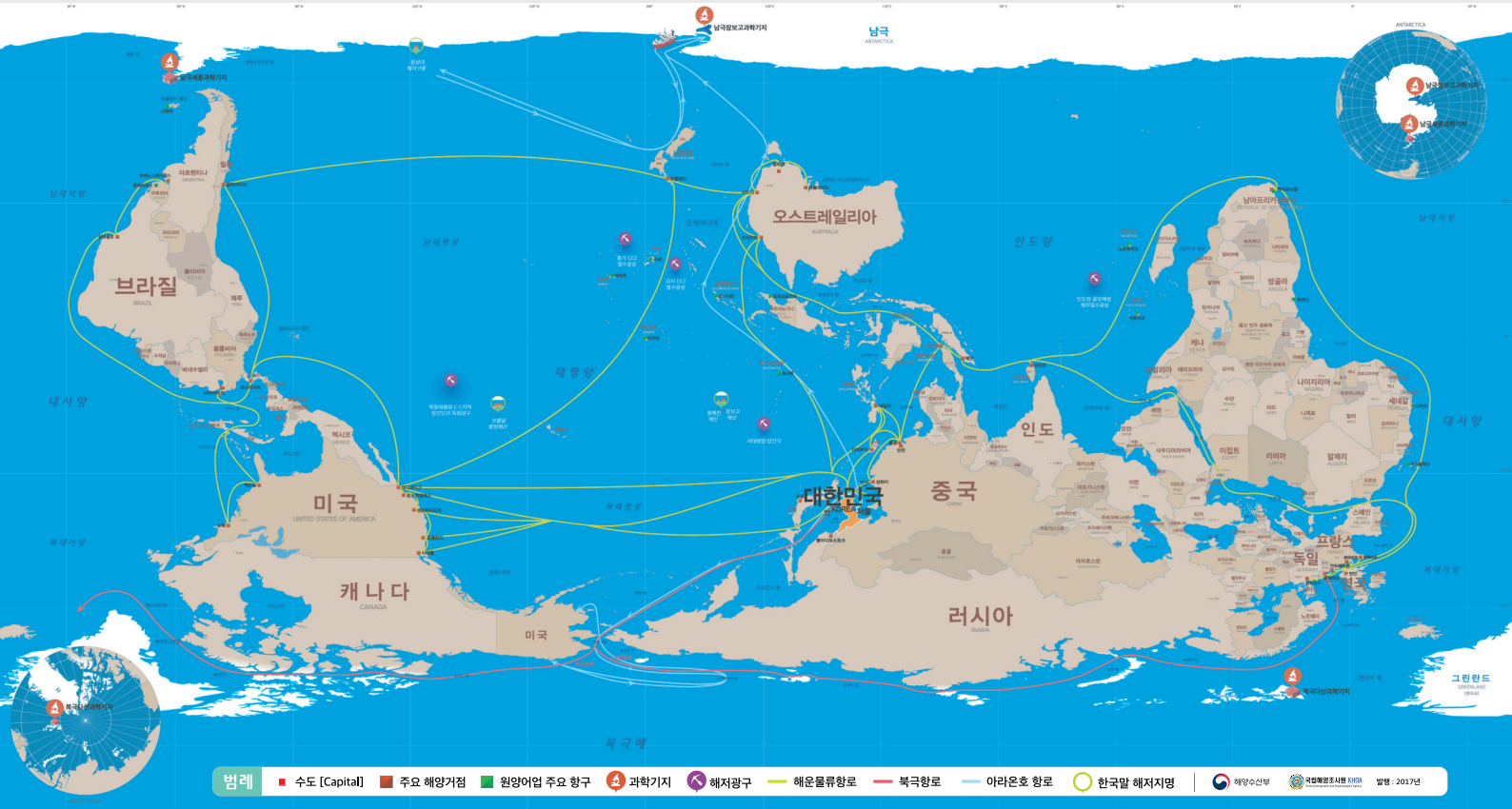


※ 지역대 :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

#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거꾸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가족 더드림서비스

# Sh 海우리패키지통장

### 더드림서비스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임직원을 위한 특별 혜택

- 드림 1**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 드림 2** 간편한 소액 마이너스 신용대출
- 드림 3**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 드림 4** 환전, 송금 환율 90% 우대 (USD, JPY 기준)
- 드림 5** 외화송금수수료 면제 (전신료 별도 부과)
- 드림 6** 기존 통장에서 간편하게 전환 가능

### 한시특별이벤트

- 이벤트 1** 2017년말까지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 가입시 연 **0.5%p** 추가금리 제공  
※ 수협 신용카드 최초 신규 발급하고 경제사업 이용 시
- 이벤트 2**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특판 정기예금 연 **0.2%p** 추가금리 제공  
※ 5천억원 한도내 선착순,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인터넷뱅킹 [www.suhyup-bank.com](http://www.suhyup-bank.com)

스마트폰뱅킹 **Sh Partner Bank**

고객지원센터 1588-1515/1644-1515

해우리 : 바다를 의미하는 '海'와 수협은행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우리'가 합쳐진 단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http://www.suhyup-bank.com))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 2017-282호(심의일: 2017. 08. 30 기준) ※ 유효기간 : 2017. 08. 31 ~ 2019. 08. 30 (기존 상품의 거래조건 변경시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Sh 수협은행**